

# 葛峯 金得研의 문학 세계

李 九 義(慶北大)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2) 物我一體의 지향과 귀소의지     |
| 2. 갈봉이 남긴 작품 수와 형식 | 3) 憂患意識과 救國의 實踐意志     |
| 3. 갈봉의 삶과 문학의 상관성  | 4) 處士로서의 삶과 冲淡·蕭散한 미학 |
| 1) 安貧樂道와 선비정신의 함양  | 4. 맺음말 - 提言을 곁하여 -    |

## 1. 머리말

葛峯 金得研(명종 10, 1555 - 인조 15, 1637)은 字가 汝精이요, 본관은 光山이다. 그는 惟一齋 金彦磯(중종 15, 1520 - 선조21, 1588)의 세 아들<sup>1)</sup> 가운데 큰아들이다. 그가 태어난 지 10달만에 母夫人을 여의었으나, 그는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고 가정에서 배운 학문도 典實하였다. 그는 西厓 柳成龍, 栢潭 具鳳齡, 寒岡 鄭述<sup>2)</sup> 등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학문하는 방향을 익혔다. 그의 나이 38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창의하여 집안 살림을 내어 義倉을 설치하여 군대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명나라 군대의 종사관들을 접견하는 일을 맡았다. 그가 비록 전쟁에 참여하여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은

1) 첫째는 갈봉이고, 둘째는 이름은 得璣, 자는 益精 28세에 졸하였다. 셋째는 得璣(1570 선조 - 1625) 자는 義精 庭訓을 이어 才學을 떨쳤다. 그는 溪巖 金垓, 修巖 柳軫, 忘窩 金榮祖와 학문과 도의로써 사귀니, 당시 사람들이 들을 일러 四友라 하였다. 임진왜란을 맞아 큰형인 갈봉공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다.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권1 참조.

2) 『갈봉선생문집』권4에 보면 寒岡과 栢潭의 제문이 실려 있는데, 제목은 「祭寒岡鄭先生文」(1편)과 「祭栢潭具先生文」(2편)이다. (이하 『갈봉집』이라 약칭하고 권수와 쪽수만 표시한다.)

없으나 "경상도 6진이 모두 무너졌지만 안동이 무사하였던 것은 모두 김득연의 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하였다. 이 때 원군으로 참여했던 명나라 군사들은 그의 충의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에 크게 감동하여 이를 찬양하는 시와 문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뒤, 1612년(광해군 5) 생원 시에 응시하여 동방생원과에 2등 5인으로 합격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나라에서 세 번이나 불러 벼슬을 주려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부친인 유일재 공의 묘 아래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止水亭이라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동지들과 강론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시를 읊조리기도 하였다. 이 때에 같이 노닐던 동지들은 金圻, 金垓, 琴撥, 權暉, 權泰一, 裒龍吉, 權益昌, 柳友潛, 李敬遵<sup>3)</sup> 등이다. 그가 죽은지 200여 년이 지난 1858년(철종 10) 집의에 추증되고 특별히 敎帖을 내려, "도학의 연원이 진실로 순정하고 절의가 뛰어나게 갖추었다."고 하였다.<sup>4)</sup>

지금까지 갈봉에 대한 연구<sup>5)</sup>는 주로 서지학적인 측면과 시조에 치우쳤다.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위의 목차의 순서대로 본고를 진행하기로 한다.

3) 『갈봉집』권4, 坤冊, 262쪽. 「清涼山遊錄」 참조.

4) 『葛峯先生文集』卷4, (서울: 許晟社, 1982. 3. 影印本) 坤冊, 李光庭 撰 「行狀」(357 - 364쪽)과 金土+宏 撰 「墓碣銘」(365 - 367쪽) 참조.

5) 金容稷, "葛峯 金得研의 作品과 生涯", 『創作과 批評』7권 1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 봄).

宋政憲, "葛峯先生の 遺墨考" 『論文集』10, (청주: 충북대학교, 1976).

"葛峯 時調考" 『朝鮮前期 言語와 文學』(대구: 형설출판사, 1976).

이상원, "16세기말-17세기초 사회동향과 김득연의시조" 『어문논집』31, (서울: 고려대학교문과, 1992).

이주연, "김득연 시조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6).

## 2. 갈봉이 남긴 작품 수와 형식

『葛峯集』<sup>6)</sup>에 실려 있는 갈봉 시작품 수는 오언절구가 21題 27首(측성운이 3수), 오언율시가 64제 68수(측성운이 1수), 칠언절구가 271제 360수, 칠언율시가 91제 106수이다. 절구와 율시 만을 합하면 445제 559 수가된다. 그리고 排律 또는 長律이 38수 古體로 된 長句가 1수, 오언고시가 2수(1수 4구씩), 長短句<sup>7)</sup>로 된 것이 11수, 5언 6구로 된 것이 6수이다.

文으로는 편지 1편(「答校中士林書」)와 잡저로 錄 1편(「淸涼山遊錄」), 記 2편(「止水亭記」, 「龍洞精舍記」), 序 1편(「友說贈張湛寰陳肖東朱明宇諸君子」), 跋文 2편(「書松巢遺卷後」, 「書權同知景漸龍鶴鼓序後」), 祭文이 16편이 있다.

국문으로 된 작품은, 歌辭에 「止水亭歌」 1편이 있다. 그리고 時調에, 「山中雜曲」 49수, 「感拜僉會酌以菊花酒歌而謝之」 3수, 「僉尊老契友冒雨齊會又以歌謝之」 3수, 「咏懷雜曲」 5수, 「戲咏赤壁句又歌三疊歌」 3수가 있다. 즉, 국문으로 된 작품 수는 가사 1편과 시조 63수이다. 이상 열거한 작품 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葛峯集』卷1-3 (서울: 許晟社 影印本, 1982).

7) 長短句로 된 시(賦를 포함)는, 8언 2구+ 7언 4구가 2수,  
5언 8구+6언+7언+6언+7언+7언4구+3언+7언 2구가 1수,  
5언6구+7언2구가 1수,  
7언 4구+8언 4구가 1수,  
5언 6구+ 7언 2구가 1수,  
6언+5언+6언+5언+7언 2구가 1수,  
5언 4구+7언 7구가 1수,  
5언 48구+ 7언 2구가 1수,  
5언 22구+3언+7언 4구가 1수,  
6언 2구+ 5언 2구가 1수이다.

## 1. 詩(賦 포함)

五言絶句	五言律詩	七言絶句	七言律詩
21제 27수(측성운 3수)	64제 68수 (측성운 1수)	271제 360수	91제 106수
長律	古詩長句	長短句(賦 1편 포함)	五言六句
38수(7언 22구 1수 포함): 5언 37수	5언 104구 1수	11수	6수
계: 501제 615수			

## 2. 文과 국문작품

편지(書)	記	錄	序
1편	2편	1편	1편
跋文형식(序後)	祭文	국문가사	국문 시조
2편	16편	1편	63수
계: 文 23편, 가사 1편, 시조 63수			

이 상의 작품들의 형식적인 면에서 본 갈봉 문학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시는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7언 절구이다. 그러나 칠언절구 이외에 일반적으로 근체시라 불리는 5언 절구와 율시, 7언 율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언에서 8언까지 한 句의 글자 수를 다양하게 나열하여 자신의 作詩에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만큼 그는 문학적인 소질이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칠언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 지은 시들은 대부분 5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5언 시는 7언 시에 비해서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빠르면 그만큼 힘이 있게 마련이다. 이 힘이 내부로 들어가면, 의지가 강하게 된다. 그는 한해의 처음을 5언의

長詩로 읊조리고 있어 처음 시작하는 새해에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간 날들은 반성하고 앞날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의 문집 가운데는 '문'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은 그가 文을 적게 지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 전하는 것이 적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洪萬績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즉, 갈봉이 살았던 때는 바로 조선시대 500년 가운데 가장 外患이 심했던 때였다.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많은 양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sup>8)</sup>

넷째 국문으로 된 歌辭와 時調를 남기고 있는 것은 갈봉 자신이 그만큼 우리말의 활용에도 능숙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조선 중기의 우리말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3. 갈봉의 삶과 문학의 상관성

#### 1) 安貧樂道와 선비정신의 함양

'安貧樂道<sup>9)</sup>'는 선비들이 조선시대 지향하는 하나의 실천의지일 것이다. 특히 도학자들은 이 말을 숭상해왔고, 또 실천하려고 했다. 갈봉 또한 그 예외는 아

8) "선조께서 평생토록 지으신 것은 많지 않지 않지만, 임진병화의 나머지에 다만 여강 상부백서 1편과 초당창화시 4운 1첩이 남아 있을 뿐이다.(先祖平生所著, 不爲不多, 而壬辰兵燹之餘, 只存廬江上府伯書一篇, 草堂唱和詩四韻一帖)." 『葛峯集序』.

9) 이 말은, "공자가 말씀하시길, '얼질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시골에 있는 것을 남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여!(子曰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 『論語』卷6, 「雍也」, 9章의 구절에서 유래한다. 송나라 程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안자의 즐거움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 및 누추한 시골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그 마음을 엮매여 그 즐거움을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 어질을 칭찬하신 것이다(程子曰, 顏子之樂, 非樂簞瓢陋巷也, 不以貧窶其心而改其所樂也, 故夫子稱其賢)."라고 한다. 위와 같은 곳, 朱熹註.

니다. 그의 家系를 살펴보면, 그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산수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전념했던 것은 선대의 遺訓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증조부인 潭庵 金用石(23世)<sup>10)</sup>은, “남자가 성균관 진사만은 아니 할 수 없으나 대과(文武科)에는 참여하지 말라” 하였다. 이러한 선대의 유훈을 따라 조부인 金籌(24世, 중종 23, 1528, 퇴계와 같이 진사시에 합격), 그의 아버지인 惟一齋 金彦璣(25世, 1520 - 1588), 그리고 갈봉 자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과에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갈봉이 자연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조선시대 여느 선비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먼저 그의 시 가운데 「賞春<sup>11)</sup>」 들어보기로 한다.

春入山村晴日鮮	산촌에 봄이 드니 햇빛도 선명하고,
風光和暢造無邊	풍광이 화창하니 조화가 끝이 없네.
塘涵淡白窟開鏡	연못은 담담하고도 맑아 거울 같고,
洞颺輕黃柳嬋妍	골짜기에는 산들바람 연두 빛 버들이 곱네.
紅紫百花粧盡障	울긋불긋 온갖 꽃들이 무진장 피어있고,
淸冷羣籟奏琴絃	맑고 서늘한 소리들은 거문고를 연주하듯.
林林萬物皆生意	숲마다 만물이 모두 생기를 찾았으니,
中有閒人亦樂天	그 가운데 한가로운 이 몸도 천리를 즐긴다네.

이 시를 지었을 때의 계절은 봄이다. 봄이 되면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도시가 아니고 산촌이니 그 빛은 더욱 더 고울 것이다. 이러한 경치는 자연이 만드는 것이다. 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현상은 쉼 없이 조화를 부린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시인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괴로워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잡념 없이 한가롭게 지내면서 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시인 자신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시는 『갈봉집』도

10) 潭庵(단종1, 1453- 중종18, 1523)은 佔畢齋 金宗直의 문인이며, 천성이 청렴결백하고 강직하여 外物에 추호도 동요되는 일이 없었다. 그 당시 조정의 형편으로 보아 집권한 간소배들이 머잖아 사화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가솔을 데리고 안동으로 이사하여 학문을 탐구하며 가난하나 나무하는 늙은이들과 같이 세월을 보내며 자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卷1, 「成均進士潭庵諱用石遺墟碑銘」 참조.

11) 『갈봉집』권2, 乾冊, 147쪽.

처에 산재해 있는데, 다음의 「南山暮烟」<sup>12)</sup>은 시인이 자신의 삶을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읊조리고 있다.

水曲山回護別村 물길이 굽이치고 산이 에워싸 별촌을 지키니  
 村爲玉洞洞爲門 마을은 옥동이요, 동구는 문이 되네  
 太平形像猶依舊 태평스러운 모습은 옛날과 같은데,  
 薄暮長烟抹一痕 회부연 저녁 연기에 한 흔적 닦아내네.

물길이 굽이쳐 흐르고 산이 사방을 에워싸니 마치 별유천지와 같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동네는 옥동이고, 동구는 마을 문이 되니 그 태평스러운 모습은 옛날과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늙었다. 저녁 연기에 눈을 비빈다고 했으니까. 물론 피곤해서 눈을 비빌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인이 벌써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자연과 친화하고 있다. 다음의 「賞牧丹」이라는 시도 시인 자신이 안빈낙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人道花王富貴花 사람들은 이 꽃을 화왕이요 부귀화라 하는데,  
 如何今日到貧家 어찌하여 오늘은 가난한 집에 이르렀나.  
 貧家得此還如富 가난 집에서 이 꽃 얻으면 다시 부자 된 것 같으니,  
 自詫山翁活計多 산 속에 사는 늙은이 살아갈 방법 많음 자랑한다네.

사람들은 모란을 화왕이라 하고, 부귀화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다 가난한 집에 모란이 피었다. 모란이 있을 곳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모란이 피었으니 마음은 마치 부자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산 속에 사는 시인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顔回나 曾點과 같이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또 산수에 노닐면서 화평한 세계를 탐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西郊觀稼」라는 시

12) 『갈봉집』 乾冊. 144쪽.

에도 이러한 시인의 생각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원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 2) 物我一體의 지향과 귀소의지

사람이 외물을 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役物적 삶이요, 다른 하나는 役於物적인 삶이다. 갈봉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役物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역물이라는 말은 『순자』에 처음 나오는 말인데, 『근사록』이나 『심경』에도 언급하고 있다.<sup>13)</sup> 이 역물은 자신이 사물을 관조<sup>14)</sup>하고 난 뒤라야 가능할 것이다. 먼저 「還山」(2수 중 其1)이라는 제목의 시를 들어보기로 한다.

浹旬久阻雨 열흘이 넘게 내리는 비로 떠나지 못했더니,  
 今日乃言歸 오늘에야 마침내 돌아가겠다고 했네.  
 階菊長新茁 뜰의 국화는 새로이 꽃대가 자라는데,  
 池荷落故衣 연못의 연꽃은 옛 옷을 떨어뜨리네.  
 鳥驚啼澗樹 시냇가 나무 위의 새는 놀라 우짖고,  
 僧喜闐巖扉 스님은 기뻐하며 바위틈 문을 여네.  
 觀物閒成趣 관물함이 한가로운 취미가 되었으니  
 何人有是非 어찌 인간 세상의 시비가 있으리.

13)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인은 사물에 부림을 당한다(君子役物, 小人役於物)” 『荀子』 「修身」篇.

“사물이 각각 사물의 이치에 맞으면 이는 사물을 부리는 것이요, 사물에 부리는 바가 되면 이는 외물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物各付物, 則是役物, 爲物所役, 則是役於物).” 『心經』卷3, 「牛山之木章」.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소인은 사물에 부림을 당한다. 지금 기뻐하고 성낼 만한 일을 보고 자기가 한 자질구레한 일을 받아들이면 이 또한 수고로운 것이다. 성인의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다(君子役物, 小人役於物, 今見可喜可怒之事, 自家著一分陪奉他, 此亦勞矣. 聖人之心, 如止水).” 『近思錄』卷5.

14) “天將以夫子爲木鐸” 註 “封人一見夫子而遽以是稱之, 其所得於觀感之間者深矣.” 『論語』 「八佾」篇.

“汝雖強記, 但益多聞, 予奢摩他, 微密觀照心猶未了.” 『楞嚴經』卷2.

“於人法得無我, 於觀照得甚深.” 唐, 李華의 「衢州龍興寺故律師體公碑」.

갈봉의 작품 가운데, 觀物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시가 세 편 있는데, 「觀物書懷」(권1), 「山亭觀物」(권1), 「夙興觀物」(권3)이 그것이다.



먼저 首聯에서 시인은 기다림의 심정을 읊조리고 있다. 그것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리는 것이다. 시인, 즉 자아는 열흘이나 넘게 내리는 비로 인하여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이 시를 지은 당일에야 겨우 떠나려고 한다. 시인이 떠나는 것은 중들처럼 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불도를 닦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다.

頷聯에서 시인 자신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이 隱逸者, 즉 山林處士<sup>15)</sup>라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주렴계가 「애련설」에서 국화는 은일자요, 연꽃은 군자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시인도 주렴계의 말처럼 자신은 은일자이면서 군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설령 자신이 군자는 못돼도 최소한 군자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함련에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다. 즉, 국화는 꽃이 피고 연꽃은 떨어지는 계절, 바로 가을이다. 이 연에서 알 수 있듯이 갈봄은 최소한 청풍고절을 지키면서 처사로 자처하려고 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속세를 떠나 산 속에 은거하는 '巖穴之士' 또는 '巖樓之士'로 지내기도 했다. 바로 그가 국화를 사랑했던 것은 이러한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

頸聯에서는, 자아 자신이 벌써 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산으로 돌아오니 새들은 마치 자신을 반겨주듯이 지저귀고 있다. 외물과 인간의 조화인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중<sup>16)</sup>이다. 중이 바위 틈새로 난 문을 열어 시인을 맞는다.

尾聯에 오면 시인은 완전히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다. 관물하는 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했으니, 시인 자신은 외물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것, 즉 役於物이

15) 淸風高節의 풍모와 인품을 갖추고 百代에 敬을 세워야 處士("先生淸風高節, 可以起敬百代"(成守琛 『聽松集』 권2, 趙翼 撰 「墓碣陰記」) 또는 逸民·逸士라 할 수 있다. 在野에서 생활하면서 벼슬을 사양한다 해서 모두 처사가 될 수는 없다. 이장희, 朝鮮時代 선비研究.(서울: 博英社, 1989. 10), 160 -161쪽 참조.

16) 여기서 '중'의 의미는 卑稱이 아니라 「月印釋譜」에 나오는 의미, 즉 '福田'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아니다. 시인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즉, 天命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삶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내적인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심경』 「牛山之木」장을 보면, “처음에 그 말을 따라 그 도리를 헤아려 보면 이미 뿔뿔한 법이 있으나, 만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도는 헛되이 행해지지 않는다.17)”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 갈봉은 자연의 도를 지키고 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즉 갈봉은 바로 자연의 순리대로 役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荷花盛開菊叢穠郁感而書懷18)」라는 시를 보고 나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彭澤咏佳色 도연명은 국화를 읊조렸고,  
 濂溪愛淨友 주렴계는 연꽃을 좋아했네.  
 清意儘一般 맑은 뜻은 모두 한가지이니,  
 景慕千載後 천년 뒤에도 우러러 사모하네.  
 馨德必不孤 덕 있는 이 반드시 외롭지 않으니,  
 兩美吾所取 두 아름다움을 내가 취하였네.  
 可想古人心 옛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相對敬之久 서로 대해 오래도록 공경하네.  
 方塘與東籬 연못과 동쪽 울타리에,  
 各得天然趣 각각 자연의 취미를 얻었으니.  
 看看日不厭 나날이 보아도 싫지가 않아서,  
 朝朝開竹牖 아침마다 대나무 창을 연다네.  
 知己爾與我 나를 알아 줄 이 그대들과 나,  
 雅契期不負 좋은 인연 서로 등지지 않으리.

자아, 즉 시인은 도연명19)과 주렴계가 국화와 연꽃을 좋아했듯이, 자신도 국화와 연꽃을 좋아한다고 했다.20) 국화는 꽃 가운데 은일 자이다. 갈봉의 시에

17) “初率其辭而揆其方, 既有典常, 苟非其人, 道不虛行.” 『心經』卷3, 「牛山之木章」.

18) 『葛峯集』乾冊, 148쪽.

19) 陶淵明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田園詩人이라 한다. 이러한 전원시의 계보는 東晉의 陶淵明, 당나라 王維, 송나라 蘇軾으로 이어진다. 소식의 시풍은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했다.

20) 주렴계의 「愛蓮說」에 “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 『古文眞寶』後集.

도 연꽃과 매화, 그리고 국화를 읊은 시가 많이 있다. 연꽃은 꽃 가운데 군자이다. 시인 자신이 은일 자이기에 국화를 좋아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는 바로 자신이 은일 자이면서 군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화는 겨울을 지나 봄, 그리고 여름을 겪고 나서야 꽃을 피운다. 따라서 李鼎輔(숙종 19, 1693- 영조 42, 1766)의 시조에서는 국화를 傲霜孤節이라 하였고, 서정주의 시에서는, “먼 머언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라 했다. 그만큼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야 은은히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 꽃은 어쩌면 자아의 성장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시인이 태어난 뒤 열 달만에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 뒤 시인은 조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sup>21)</sup> 그러니 시인이 성장하는 동안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집안도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가 살아오는 동안의 어려움은 더욱 더했을 것이다. 그의 시 「王母諱辰行祭有感<sup>22)</sup>」이라는 시를 보면 자신의 성장과정을 읊조리고 있다.

四十年來有此辰	40년 동안 이 날이 있었는데,
每逢悲感倍傷神	매번 맞을 때마다 슬픔이 더하네.
生孩遽失慈烏母	갓난아기 때 갑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鞠育全依劉祖親	오로지 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
罔極昊天恩一體	이 한 몸에 내려주신 하늘처럼 가없는 은혜,
難將寸草報三春	조그마한 성의로는 갚기 어려워.
至今不盡羹牆慕	지금도 추모의 정 다하지 않아,
和淚題詩祇自陳	스스로 읊조리면서 눈물만 진다네.

21) 李光庭이 지은 갈봉의 「行狀」에도, “嘉靖乙卯二月一日生, 公未晬而母夫人卒, 鞠於祖母安夫人.”이라는 말이 있다. 『葛峯集』卷4, 坤冊 357쪽.

갈봉의 생모는 英陽 南氏로 主簿를 지낸 世容의 따님이다. 이 남씨와 유일재 사이에서 1남 2가 태었다. 생모가 돌아가시고, 後妣인 永川李氏가 2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득숙과 득의이다. 『惟一齋先生實記』권2, 「行狀」 및 「墓碣銘」 참조.

또, 『葛峯集』을 보면, 「○○元朝」, 또는 「○○元朝述懷」라는 시가 있는데, 그가 66세 되던해 庚申年(광해군 12, 1620)부터 그가 80세 되던 甲戌年(인조12, 1634)까지 해마다 정월초하룻날 자신의 회포를 시로 표현했다. 이 작품들은 「庚申元朝」를 제외하면 모두 5언長律이다. 가장 긴 시는 「癸酉元朝述懷」(79세, 인조11, 1633)로 5언 140구나 된다.

22) 『갈봉집』乾冊, 176쪽.

라고 하여 조모의 제삿날에 시인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이 시를 지은 까닭에 대해서, “열 달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十朔失母保生於祖母故云)”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sup>23)</sup>

조모를 여윈 지가 40년이 지났다고 했다. 시인이 태어난 지 한 해가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을 낳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할머니가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바로 이 시를 지은 날이 할머니 제사였으니, 자신을 키워 주신 그 할머니 정의를 돌이켜 생각할 때 느끼는 시인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겠지만, 옛 일을 기억나게 하는 제삿날을 맞으니 시인의 생각은 다시 먼 과거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昊天罔極의 은혜를 어찌 삼 년 동안 소·대상을 치는 것으로 다 갚을 수 있겠는가 하고 시인은 애통해 하고 있다. 어찌면 시인 자신이 어려서부터 외로움과 한스러운 세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더 의지가 굳어졌을 것이다.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 향한 의지가 아니라 좋은 쪽인 것이다. 시인이 살아온 나날들은 바로 국화나 매화의 성질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고 가을이 되어 꽃을 피우는 국화나, 매서운 겨울의 눈보라를 이기고 이른봄에 피는 매화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인한 것이다. 다시 「得雨種菊<sup>24)</sup>」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喜趁山中好雨時    산 속에서 단비 올 때를 맞아,  
手鋤移菊種東籬    손수 동리에 국화를 옮겨 심었네,  
莫言陶後無知己    도연명 이후 알아줄 이 없다 마오,  
我亦平生結雅期    내 또한 평생토록 좋은 벗이 되리니.

이 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아가 도연명을 사모한 나머지 도연명처럼 국

23) 이 시 이 외에 그의 나이 일흔 일곱 살에 지은 「辛未元朝」라는 시에도 자신의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그 일단을 들어보면, “修身以俟命, 人人知也未. 聖賢豈欺我, 但恐吾斯未. 嗟吾不肖子, 事事皆全未. 十朔失慈母, 慈顏識之未. 九齡學嚴父, 嚴訓習之未. 辛勤幾歲月, 一劔試之未……” 『갈봉집』 乾冊, 178-179 쪽.

24) 『갈봉집』 권2, 乾冊, 141 쪽.

화를 옮겨 심었다. 그것도 '東籬', 즉 동쪽 울타리에 심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말하기를, 도연명 이후 국화를 알아 줄 이 없다는 소리하지 마라고 했다. 바로 자아, 즉 시인 자신이 국화와 더불어 평생토록 좋은 벗이 될 것을 기약하고 있으니까. 또 시인은 「雨後賞蓮<sup>25)</sup>」에서 주렴계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가 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池面平鋪碧玉盤 연못 위에는 푸른 옥 쟁반이 펼쳤는데,  
明珠含露點團團 맑은 구슬이 이슬 머금고 송이송이 봉긋하네.  
清齋終日堪心賞 청재에서 종일토록 마음으로 완상하노니,  
料得濂溪意一般 주렴계의 뜻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네.

起句에서 옥 쟁반이라고 한 것은 연잎을 가리킨다. 옥 가운데서도 푸른 옥이다. 承句에서 맑은 구슬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연꽃을 가리킨다. 그만큼 蓮은 고고한 것이다. 이러한 고고함이 바로 군자에 비견하는 것이 아닌가? 자아 자신도 바로 이러한 蓮의 고고함을 좋아한다. 즉, 주렴계가 말했듯이 자아 자신도 君子 儒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험할수록 군자는 빛난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듯이.

### 3) 憂患意識과 救國의 實踐意志

『주역』을 보면, “易이 일어남은 중고일 것이다. 역을 지은 사람은 우환이 있었을 것이다.<sup>26)</sup>”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대해 宋나라 朱熹는 “하나라, 상나라 말기에는 역도가 중간에 쇠퇴하였는데, 문왕이 유리에 갇혀 있을 적에 彖辭를 달아서 易道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했다. 또 “우환과 그 우환이 일어난 까닭에 밝다. 사보가 없으나, 부모가 임한 듯하다.<sup>27)</sup>”는 말도 있다.

25) 위와 같은 곳.

26) “易之興也，其於中古乎，作易者，其有憂患乎.” 『周易』 「繫辭」(下) 7章.

27) “又明於憂患與故，无有師保，如臨父母.” 『周易』 「繫辭」(下) 8章.

갈봉 산 시대(명종 10, 1555 - 인조 15, 1637)는 내우외환의 때였다. 즉, 조선시대 500년 동안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고, 밖으로는 일본이나 청나라의 침입 있었던 시대였다. 이처럼 어려운 때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갈봉 자신은 이러한 내우외환의 시대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는 나라에 내우외환이 있을 때 관리가 아닌 산림처사의 몸으로 구국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행장을 보면, “임진란 때는 사우들과 창의하여 항상 군량을 맡았다.”<sup>28)</sup>라는 말이 있다. 이론적으로만 우환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우환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바로 참된 선비가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맹자』는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sup>29)</sup>라는 말에 뒤이어, “들어가면 법도 있는 집안과 보살피는 선비가 없고, 나오면 적국과 외환이 없는 자는 나라가 항상 멸망한다. 그런 뒤에야 사람은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음을 알 수 있다.”<sup>30)</sup>고 했다. 맹자의 말을 빌리면, 선비와 외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선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선비가 평소에 독서나 하고 義理를 談論하다가 죽고 사는 患亂에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등을 돌리는 일이 없지도 않다. 다음 글을 보면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선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옛 사람들의 책을 읽고 古人之 절개를 흠모하며 큰 소리로, '의로운 일로 죽으면 죽었지 구차한 삶을 바라지는 않겠다'고 하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어수선할 때 목숨을 버릴 義를 취한 자가 백 명 가운데 한 두 사람도 없었다.<sup>31)</sup>

28) “壬辰之亂 與士友倡義 公常管糧餉” 『葛峯集』卷4, 李光庭이 지은 「行狀」.

29) “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孟子』 「告子」(下).

30) “入則無法家拂士,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然後 生於憂患死於安樂.” 『孟子』 「告子」(下) 15장.

31) “士之生世, 讀古人書, 慕古人節, 平居嚶嚶然, 曰以義死不願苟生, 及夫國家危難, 干戈槍攘之日, 捨生取義者, 百無一二.” 李廷範, 『四留齋集』卷7, 雜著 「三節婦傳」.

이로 미루어 볼 때 말로만 義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 놓고,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사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봉은 이러한 무리들과는 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분연히 나라를 위해 일어났다. 또 1636 12월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나라를 근심하여 분을 삭이지 못했는데, 그 다음 해 지은 「聞賊兵犯平壤大駕幸江都張旅軒鄭愚伏爲號召使<sup>32)</sup>」(丁卯) 시에서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猶虜久稔惡	교활한 오랑캐들 나쁜 짓은 늘어만 가.
鐵馬衝榆關	철마는 유관을 향하여 내달리네.
去歲讐大邦	지난해에는 큰 나라 원수들이 쳐들어와
遼城不日殘	요성이 하루도 안 되어 무너졌지.
今年又陸梁	올해는 또 육량으로 쳐들어와,
直擣陷龍灣	곧 바로 용만을 함락시켰다네.
邊警忽告急	변경에서는 갑자기 위급하다 아뢰니.
舉國如驚湍	온 나라가 마치 세차게 흐르는 여울 같네.
羽書徵八路	팔도에는 우서(羽書)가 빗발치고.
列邑稱戈干	몇 고을은 적군들을 맞았네.
賊勢已孔棘	적의 형세가 이미 대단히 악랄하니,
民生幾塗肝	민생은 거의 도탄에 빠졌다네.
逃矣西土陲	임금은 서쪽 변방으로 피난하셨으니,
甚於圍邯鄲	한단(邯鄲)을 포위한 것보다 더 심하네.
兇鋒莫能退	흉악한 칼날을 막지 못해서,
長驅一瞬間	한 순간에 먼길 치달았네.
遙聞去邠行	들리는 소리 임금은 피난했다 하니,
天步嗟艱難	임금의 행차 어려움이 많을 지고.
播越至此極	어찌다 이러한 극한상황에 이르렀나.
社稷將誰完	이 나라를 누가 보전할 것인가?
痛哭亂離瘼	난리에 서로 흩어져 통곡하니,
向日葵忱丹	해를 향한 해바라기처럼 단심을 드리네.
嗚呼余曷歸	아, 나는 어디로 갈꼬.
無寧死故山	고향에서 편안히 죽을 수도 없네.
王事信靡監	왕사를 살필 겨를도 없으니,

32) 『갈봉집』권2, 乾冊, 171-172쪽.

人心深可嘆 인심이 차므로 안타깝구나.  
 望風爭鳥竄 세상 형편 보니 새가 날 듯 도망하고,  
 於何有一韓 어디에 우리 조선이 있는가?  
 堂堂張夫子 당당한 장부자(장여헌)와,  
 蹇蹇鄭達官 충직한 정달관(정우복)은,  
 我二人共貞 나와 이 두 사람 함께 곧으니,  
 仗義先登壇 창의하여 남 먼저 일어났네.  
 號召皆響應 호소하니 모두 향응하여,  
 師旅稍成團 군사들이 무리를 이루었네.  
 聲威尙桓桓 명성과 위엄이 굳세어서,  
 賊膽聞必寒 적들은 보고 듣고 기가 질리네.  
 願言諸君子 바라나니, 여러 군자들은,  
 各自心力殫 각자 마음과 힘을 다해서.  
 調兵宜務精 병사들을 훈련시켜 정예롭게 하라.  
 轉糧當繼餐 군량은 계속해서 대 줄 터이니.  
 勝算在於斯 싸움의 승산이 여기에 있으니,  
 斯言非所謾 내가 하는 말 거짓이 아니라네.  
 何當掃妖氛 언제 저 요망한 적들을 무찔러,  
 轉危復爲安 위태로움이 다시 편안해 질까?

5언 44구로 된 長詩이다. 이 시는 갈봉이 죽던 해에 지은 것이다. 청나라 군사들이 평양을 점령하자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고, 旅軒 張顯光(명종 9, 1554 - 인조 15, 1637) 과 愚伏 鄭經世(명종 18, 1563 - 인조 11, 1633)가 號召使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시를 지었다. 바로 시인 자신이 나라 일을 걱정하여 분연히 일어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一助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는 그의 나이가 이미 83세나 되어서 倡義隊列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비분강개한 마음만을 달랠 뿐이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 松栢이 늦게 마르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혼탁한 뒤에야 맑은 선비를 볼 수 있다<sup>33)</sup>는 말이 있듯이, 갈봉은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 이를 피하지 않고 몸소 우환 속으로 들어가 이를 극복하려 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군량미를 모아보

33)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舉世混濁，清士乃見” 司馬遷, 『史記』권61, 「伯夷列傳」1.



냈다.

이 시 이외에도 전란을 배경으로 읊은 시가 몇 수 있는데, 「聞鶻」(권2), 「詠懷」(권2), 「聞西報憤以記之」(권2)와 같은 것들이다. 이처럼 갈봉은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 이를 피한 것이 아니라 몸소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선비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던 것이다. 바로 '訥於言而敏於行'인 것이다.

#### 4) 處士로서의 삶과 冲淡·蕭散한 미학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갈봉은 일찍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선조의 유훈에 따라 그는 과거 시험에 뜻을 두지 않았다. 다만 1612년(광해군 5) 생원, 진사 시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였다.<sup>34)</sup>

그러나 그 당시는 복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이후 나라에서 세 번이나 불러 벼슬을 주려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부친인 유일재 공의 묘 아래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止水亭<sup>35)</sup>이라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동지들과 강론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시를 읊조리기도 하였다.

이 때에 같이 노닐던 동지들은 金圻, 金垓, 琴撥, 權暉, 權泰一, 裴龍吉, 權益昌, 柳友潛, 李敬遵<sup>36)</sup> 등이다. 그는 「지수정」시와 「지수정팔경」, 그리고 「지수정가」 외에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의 문학 작품은 대개 이 지수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34) 갈봉이 처사로서 생활한 것, 또 자신이 태어나 성장하고 살았던 내용을 시로 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66세부터 80세까지 지은 「○○元朝」, 또는 「○○元朝述懷」라는 제목의 시 12수이다. 이들 시 가운데 그가 66세 때 지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長篇으로 가장 긴 것은 그가 79세 때 지은 것으로 무려 140구나 된다. 본고에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 그 시들은 들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고찰할 것이다.

35) 이 정자를 처음 지은 것은 무자년(선조 21, 1588)으로 그 대는 外憂가 있어 와룡산 언덕에 정자를 세웠다고 한다. 『갈봉집』권4, 「지수정기」 참조.

36) 『갈봉집』권4, 坤冊, 262쪽. 「清涼山遊錄」 참조.

갈봉 시에 나타난 미학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하면 冲淡·蕭散<sup>37)</sup>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다음 시들을 고찰하고 난 뒤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먼저 「閒中謾咏<sup>38)</sup>」를 들면 다음과 같다.

此身長在此山間	이내 몸 오리도록 이 산 속에 있었으니,
牧豎樵童慣我顏	소치는 늙은이 풀 베는 동자 내 얼굴 익다네.
巖竇生風松瑟瑟	바위 구멍에서는 솔바람 소리 솔솔,
石缸飛雪玉潺潺	돌다리 위에 내리는 눈 옥같이 잔잔하네.
林深洞邃人來少	숲과 골짜기가 깊으니 찾아오는 드물고,
天遠峯高雲去閒	하늘 멀리 높은 봉우리에 떠가는 구름 한가로워.
獨坐獨吟仍獨臥	혼자서 앉았다 읊조리다 눕기도 하여 지내니,
世間何事又相干	세간의 무슨 일을 서로 간섭하리오.

시인 자신이 산에서 생활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산에서 오래도록 생활하다 보니 소치는 아이나 풀을 베는 동자들도 서로 얼굴을 알아본다. 또 시인은 자연물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바위 구멍이나 솔바람 소리가 솔솔 나는 것이며, 돌다리와 눈 등을 통 해서 볼 때, 이 시의 風格은 淡淡·蕭散 또는 冲淡<sup>39)</sup>·蕭散의 앞 단계인 清新 또는 清逸<sup>40)</sup>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7) 冲淡·蕭散에 대해서는 金周漢, “論冲淡蕭散考” 『安東大論文集』1, (安東大, 1981) (이 글은 그의 저서, 『韓國文學批評史論』, 대구: 學士院, 1998. 2, 583 -597쪽에 轉載되어 있다)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38) 『갈봉집』 乾冊, 145쪽.

39) “소박하게 지내며 말없으니, 오묘한 기질이 은미하네. 지극히 조화로운 기운 마시고, 한 마리 학처럼 날아다닌다.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따스한 기운 옷에 여미는 듯. 길게 늘어진 통소소리 듣고, 좋다! 신고 가리라 하네. 만남은 그다지 깊지 않으나, 나아가면 더욱 희미해지네. 모습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나, 손으로 잡으면 이미 달라져버리네. (素處以默, 妙機其微. 飲之太和, 獨鶴與飛. 猶之惠風, 荏苒在衣. 閱音修篁, 美曰載歸. 遇之匪深, 卽之愈希. 脫有形似, 握手已違.)” 詹幼馨, 司空圖詩品衍釋, (臺北: 仁愛書局, 1985. 9) 12쪽.

40) 唐나라의 司空圖는 시의 풍격을 24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清’이 들어가는 풍격은 ‘清奇’이다. 이 清奇를 풀이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저 멀리 소나무 숲, 그 아래 졸졸 흐르는 맑은 시내. 맑은 날 냇가에 눈 가득하고, 저 너머 시내에는 고기잡이 배. 마음에 드는 이 옥 같은데, 나막신 신고 그윽한 곳 찾아가네. 가다가 멈추었다 하는데, 하늘은 아득히 푸르네. 신비하게 예스럽고 기이하니, 답답함 그 지없네. 달빛과도 같고, 서늘한 가을과도 같네(娟娟群松, 下有其流. 晴雪滿汀, 隔溪

淡은 五味 가운데 中이다. 군자는 담박하나마 진실, 진정이 들어 있는 眞率한 마음과 태도를 중시한다. 소인은 그렇지 못해서 우선 듣기 좋은 말, 달짝지근한 말로 남을 속인다. 『장자』의 「山木」에 “군자의 사귀는 담담하여 물과 같으나, 소인의 사귀는 달기가 단술과 같다. 군자는 담담하기 때문에 친교가 계속되지만, 소인은 달콤하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고 만다.<sup>41)</sup>”는 말이 있다.

蕭散은 맑고 산뜻하고 메인 데 없이 시원히 티끌을 벗어난 기상이다.<sup>42)</sup> 산수 맑은 가운데 어부가 유연히 다가오니 神韻이 산뜻하다든지, 意象은 푸른 풀잎에 일반 生意가 넘치고, 시냇물이 끝없이 노래하며 흐르는 정경, 그 어느 것이나 다 영원의 모습 그 자체이다. 繼善成性의 우주의 理法, 天道가 유행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靈氣가 오가는 虛白한 정자처럼 산뜻한 것이다. 다음의 「詠梅<sup>43)</sup>」와 같은 시는 바로 그러한 맛을 풍기고 있다.

水月精神白玉肌 얼음처럼 차가운 달의 정신이요, 백옥 같은 피부,  
 暗香跡影澹相宜 그윽한 향기 성긴 그림자 담담함이 맞네.  
 幽人獨愛坐終日 은자가 종일토록 앉아 홀로 사랑하나니,  
 庭院無風雪落時 뜰에는 바람이 없이도 쌓인 눈 떨어질 때.

갈봉은 매화의 내면과 형상을 묘사하기를 얼음처럼 차가운 달과 같은 성질이요, 백옥과 같은 피부라고 했다. 그 내면은 차가우면서 그 모습은 청초하기가 흰 옥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화를 시인 자신이 사랑한다. 그것도 사람이 라곤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즐긴다. 또 뜰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겨우내 쌓였던 눈이 조금씩 녹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것은 바로 시인 자신이 세상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지금으로부터

漁舟. 可人如玉, 步履尋幽. 載行載止, 空碧悠悠. 神出古異, 淡不可收. 如月之曙, 如氣之秋.). 詹幼馨, 위의 책, 62쪽.

41) “君子之交淡若水, 小人之交甘若醴, 君子淡以親, 小人甘以絕.” 『莊子』 「山木」.

42) 金周漢, 韓國文學批評史論, (대구: 學士院, 1998. 2), 594 쪽.

43) 『갈봉집』 권2, 乾冊, 176쪽.

터는 이미 청량한 경계 속으로 들어갔다.44)”는 말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淸涼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세속의 욕심을 벗어났다는 것을 가리킨다. 실제로 갈봉은 그의 나이 25세 때 봉화에 있는 청량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또 그의 부친인 유일재 김언기는 청량산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45) 세속의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청량의 의미가 실제 지명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提言을 겸하여-

이상으로 갈봉 김득연의 문학 일반에 대해서 고찰해 봤다. 문학 일반이라고 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대 부분 한시이기에 주로 한시를 중심으로 갈봉 삶과 문학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갈봉이 남긴 작품 수는 시가 501제 615수이다. 그 가운데 오언절구가 21제 27수, 오언율시가 64제 68수, 칠언절구가 271제 360수, 칠언율시가 91제 106수, 長律이 38수, 古詩長句가 1수, 賦를 포함한 長短句가 11수이다. 문은 모두 16편이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편지가 1편, 錄이 1편, 記가 2편, 序가 1편, 跋文 형식의 後書가 2편, 그리고 제문이 16편이다. 국문시가로는 歌辭가 1편, 시조가 63수가 남아 있다.

갈봉의 시에 나타난 의식 세계는 먼저 사림처사로서의 안빈낙도의 추구라는 것이다. 그는 선조의 유언에 따라 진사에는 나아갔지만, 大科에 응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가난하지만 자신이 산수를 따라 도를 즐겼다. 그가 읊조린 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겉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표출한 것이다. 이점이 말로만 안빈낙도를 부르짖는 선비들과는 차이가 있다.

44) “自今已入淸涼境界中矣” 『退溪集』卷27, 「答鄭子中」已巳.

45) 『惟一齋先生實記』가운데 「行狀」과 「墓碣銘」 참조.

그는 시에서 歸巢를 통한 物我一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유가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我=物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최고로 친다. 우리는 이것을 인문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가, 즉 선비라고 해서 이러한 인문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역시 겉으로는 인문정신을 부르짖으면서 마음속에는 외물에 얽매어 헤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해서 볼 때 갈봉은 외물에는 그다지 얽매이지 않았던 것 같다. 갈봉은 자신과 외물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했다. 즉, 그는 인문정신을 함양하였다고 하겠다.

그는 한편으로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 분연히 나라를 위해 일어났다. 말과 행동의 일치요, 생각과 행동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生於憂患而死於安樂'이라는 말을 깊이 가슴속에 간직하였고, 이것을 행동으로 표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한평생 산림 처사로서 삶을 영위했으며, 가난하면서 도를 즐겼고, 산수와 가까이 하면서 물아일체를 추구했다. 이러한 그의 삶에서 생성된 시의 미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冲淡·蕭散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갈봉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문으로 된 작품 연구에 국한했다 본고는 이를 극복하고자 처음으로 한문학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 그 가운데서도 한시가 워낙 많아서 한편의 논문으로 그 전반을 고찰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일차적으로 그의 삶과 작품에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를 토대로 첫째 한시의 장르별, 주제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시와 국문시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갈봉의 작품이 조선시대 중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의 시와 文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문학사상에는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고찰할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참 고 문 헌

- 金得研, 『葛峯先生文集』(서울: 旴晟社 影印本, 1982).
- 金彦璣, 『惟一齋先生實記』(대전: 回想社 영인본, 1988).
-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1~4冊).
- 金容稷, “葛峯 金得研의 作品과 生涯”, 『創作과 批評』7권 1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 봄).
- 宋政憲, “葛峯先生의 遺墨考” 『論文集』10, (청주: 충북대학교, 1976).
- “葛峯 時調考” 『朝鮮前期 言語와 文學』(대구: 형설출판사, 1976).
- 이상원, “16세기말~17세기초 사회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31, (서울: 고려대 국문과, 1992).
- 이주연, “김득연 시조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6.
- 金周漢, 韓國文學批評史論, (대구: 學士院, 1998).
- 詹幼馨, 司空圖詩品衍釋, (臺北: 仁愛書局, 1985), 외 다수.